

# 새로운 희망 만드는 무궁무진한 군산 되도록 노력

## 민선7기 군산시정 후반기

민선7기 강임준 군산시정이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본보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찾아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원 소피 해 신축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군산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 끈기와 묵묵함을 상징하는 하얀 소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꼭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민여러분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었죠?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한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한 해 자립도시 군산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맞이하는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사 기자들이 강임준 군산시장(사진 오른쪽)을 찾아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참고로 2025년 준공되는 군산 전북대병원이 당초 500병상에서 감염병 전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북지역 감염병과 호흡기 전담병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코로나 19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이겨내겠습니다. 이때 군산은 가장 먼저 지역 상권을 유행했고 정말 대 행동을 했습니다. 성과는 어떤가요?

-우리 군산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지역 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2018년 9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으로, 2019년 9월에는 모바일상품권을, 2020년 9월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고자 모바일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군산사랑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군산시가 성공을 거두자 행안부의 지원 속에 지금은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에서 15조원의 지역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돌아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상품권 활성화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가맹점은 1만1800여개로 늘어났고 올해 벌써 560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해 1조원이 넘는 상품권을 발행, 판매 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라는 크나큰 성과로 우리 군산에 없어서는 안 될 효자사업으로 자리 매김 한 것으로 상품권 사업시작 전인 2017년 대비 지난 2019년 말 가맹점 총매출 4,302억원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 업소당 약 5000만원 상당의 매출 상승효과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국 최초 공공배달업 '호응'

여기에 배달 앱까지연속 출현을 낳았습니다. 군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네, 작년에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8월 군산에서 자체 실시한 사회조사결과 군산에서 사용하는 배달앱 중 약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시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작년 10월경부터는 꽃집, 방앗간, 떡집, 건강원, 정육점 등으로 업종을 확대했고요.

앞으로도 로컬푸드, 골목수퍼를 활용한 서비스, 업체에서 버리는 식자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감판매 알림 기능 등을 접목해 우리 군산 시민들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군산형 종합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군산의 성장동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군산시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 등 주력 산업을 통한 경제 회복 방안은?

-최근 자동차 산업은 미래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정부의 환경규제에 의해 친환경, IT융합, 안전기술 강

2025년 준공되는 군산 전북대병원,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할 것 전국 230여개 지자체에서 지역상품권 발행... 군산시가 불쏘시개 역할 공공배달업 '배달의 명수' 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시민들에 큰 호응 전기차 산업 육성 위해 클러스터 구축·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추진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등 올해 재생에너지 사업 성과 올릴 것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기틀 마련, 민선7기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아

회라는 키워드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전기차 산업육성을 위해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전기차 육성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등 전기차 개발, 양산에서 보급까지 단계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사업의 선도 기업인 (주)명신을 중심으로 에디스모터스, 대창모터스, 엘피에스코리아, 코스텍이 군산 및 새만금 산단 내에 전기차 집적화 단지를 구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에 새롭게 예산을 확보한 중견중소 전기차 기반 협업센터 구축 사업(2021~24년, 200억원)이 전기차 클러스터 성공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상태양광은 친환경자동차 관련 연구 소기업 설립, 기술이전 사업화, 공공기술 연계 기업수요 맞춤 사업화 연구개발 등에 오는2025년까지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기업과 부품 기업들이 참여하는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등의 연구사업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전기차 메카 군산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러바 '군산형일자리'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전북 군산형 일지리의 핵심적 가치는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중소, 중견기업들이 서로 힘을 모아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시아시피 군산 상생형 일자리 공모를 지난해 12월 신청함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민간합동지원단의 현장실사와 산업부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2월 중 최종 사업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참여기업은 전기차클러스터 선도기업으로 올해까지 공장 준공을 마무리해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며, 연관산업 투자유치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가할 것입니다.

### 앞서 말한 지역 상품권으로 자립도시 역량을 보여줬고요. 또 올해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올해는 민선 7기의 역점사업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해가 될 것

입니다.

먼저, 시민참여형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현재 EPC 계약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미군 전파협,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사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3월 경에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연내에 군산시 최초의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산시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높여 시 전체의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해역의 풍황자원 조사와 지역의 공론화 과정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더불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는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해상 풍력 산업 지원센터의 설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용연구센터는 2020년 3차 추경사업에 반영돼 추진 중으로 올해는 부지 토목공사와 친환경 교통 실용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 최근에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대법원이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군산시 입장은?

-대법원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 자치법 제3호 제3항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의 헌법 제117조의 지방 자치권 침해)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서 자치권 회복에 지속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부 매립지 등 갈등 소지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소모적 분쟁을 중단하고 대승적 통합관리 방안 등 새만금 사업 성과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공약사업 추진 가시적 성과

민선7기 공약 사업 이행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요?

-민선7기 취임과 함께제가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은 5대 분야, 16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73개 사업은 추진 완료됐으며 나머지 8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약사업의 평균 이행률은 77.86%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평생 교육 사업', '지역화폐 전면유통', 'GM 군산공장 전기차동차 생산기지로 전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여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 '어린이 숲체험원 조성 확대' 등의 핵심사업은 이미 추진 완료됐습니다.

70~80개 수준인 타 지자체에 비해 공약 사업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한 공약 사업 모두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사업입니다.

올해가 민선7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인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기 내 모든 공약이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시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 민선7기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민선 7기 임기 중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RE100단지)을 조성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5·6 공구 내에 조성 중인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작년 12월 18일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단계로 2023년까지 입주기업 수요에 맞춰 우선 30MW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SK의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배터리업체와 반도체 회사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에 단계별로 전력수요에 맞춰 재생에너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 군산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핵심 기관이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인데요. 올해는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까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신관동에 들어서는 사회적경제의 집적공간으로 올해 3월 착공을 하여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대지면적 9,987㎡, 건물은 지상5층 지하층 규모로, 전라북도과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기업 입주공간, 시제품공동제작실, 인력양성 프로그램실, 네트워크 및 연구공간 등으로 조성되며,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을 위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전북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조례 제정과 공동장비구축 등 운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게 되며, 군산시는 전북도와 협의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군산 시민들에게 올해 시정을 위한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군산 시민여러분. 민선 7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직 군산의 위기 극복과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이 만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산 뿐만 아니라 지난 한해 전국민이 코로나19 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올 한해는 그동안 기틀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키워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더 견뎌주십시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면 우리는 오고 싶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이 되어 어느 지자체보다도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찬 발걸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산=한경봉 기자·고병만 기자